

社說

운영 주체 없는 국제센터

조계종은 2월 18일 국제템플스테이센터 상량식을 서울 신정동 현장에서 거행했다. 센터는 6월 준공 예정이다. 지난해 문을 연 공주의 전통불교문화원에 이어 대형 건축불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로써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나라의 전통의 정서가 흠뻑 스며있는 하드웨어를 갖추게 되었다.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다. 그러면서도 걱정거리가 있음을 감출 수 없다.

개원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운영주체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불교문화사업단은 국제템플스테이센터를 외국인용 주 대상으로 하여 간소한 체형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배우공양과 다도 등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딘지 미답지 못하다. 8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외형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템플스테이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답답하다. 전국의 104개 사찰이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만도 23개 사찰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를 하는 곳이 더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 기회를 줄 수 있으니 나쁠 것은 없다. 문제는 기존의 템플스테이 사찰과 수행센터와 무엇이 다른가이다. 외국인 전용이 되든지, 새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범 운영을 통한 질적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하던지 그 특성이 분명해야 한다. 자칫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식이 된다면 낭패스러운 일이다.

성지순례 막는 MB정부의 빗장

3월로 예정됐던 금강산 신계사 순례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다. 통일부가 2월 18일로 예정됐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간의 실무 접촉을 불허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조선 불교도연맹 위원장과 불교교류를 활발히 펼치기 위해 의견을 나눴으며, 그 일환으로 남측의 불자들이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를 3월에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여름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단했던 민간교류도 서서히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통일부는 실무 접촉을 불허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대북정책 상 설명하기 어려운 유동적인 상황이 있어서 보류시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고려한 판단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이를 잇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북한도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이명박 정부도 대북 완화로 선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민간교류까지 빗장을 치는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답답하다. 이후 남북 당국자간 대화가 있을 텐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도 그렇거나와 민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다양한 대북 채널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도 전략상 필요하다.

최근 종단안팎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집행부의 정책방향 중 가장 획기적인 것 중의 하나로 화쟁위원회 설치를 꼽는다. 그간 사회변화에 둔감했던 종단의 태도를 상기하면 '획기적'이란 평가가 과히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화합이나 사회양극화를 은폐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말잔치에 덩달아 춤을 추고 있다는 비판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실제로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화쟁과 유사한 계열의 언어, 즉 소통, 화합, 사회통합 등과 같은 어휘들이 부쩍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갈등, 이념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심지어 종교갈등 등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통합이란 말은 사회갈등을 전제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이러한 이데올로기 비판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 우리사회의 갈등 및 양극화의 현실이 정부의 말잔치에 대해 한기찬 답론을 펼칠 정도 이상으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사회화합자들의 진단에 따르면, 최근 한국사회의 빈곤층은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에 중산층 비율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21만명을 넘었다.



불자 세상보기

유승무 중앙중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사회양극화와 기본소득

의 양극화문제의 해결이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함과 동시에 실제적인 정책적 대안, 즉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의 말잔치가 무용지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이 이른바 '기본소득(basic income)' 개념이다. 일찍이 저명한 경제인류학자 앙드레 고르브는,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같은 양의 생산을 위해 갈수록 더 적은 양의 노동이 요구되므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노동 비례 소득을 유지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노동 요구나 노동의 사와 무관하게, 자산이나 다른 소득의 심사 없이 보장되는 기본적인 소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소득의 제도화는 과연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실례를 우리는 기본소득을 전격적으로 제도화한 미국의 알래스카 주의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이전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부유한 가구 20%의 평균소득이 26% 증가한 반면, 가난한 가구 20%의 평균소득은 12%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알래스카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부유한 가구 20%의 평균소득이 7% 증가에 그친 반면 가난한 가구 20%의 평균소득이 무려 28%나 증가했다. 이는, 알래스카가 기본소득의 제도화로 인해 미국의 주들 가운데 가장 평등주의적인 주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빈곤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역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정확하게 부합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인연과 악연은 하나인 듯

2월의 테마-인연

"아침의 첫 햇살이 방 안으로 흘러들 어왔다. 브라운은 싹타르타의 무릎이 소리 없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싹타르타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두 눈은 아득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깨달았다. 싹타르타는 이미 자기의 곁에, 고향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싹타르타는 이미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1922년에 발표된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싹타르타"는 부처와 이들이 같은 청년 싹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을 그의 일대기를 통해 보여준다. 출가한 싹타르타는 성자 고타마 붓다의 설법으로도 방랑한 속세에서의 생활로도 해탈에 이를 수 없어 자포자 기한다. 그러나 자살을 결심한 강가에 서 신비한 소리 '옴'을 듣게 되고 뱃사공 바수데바의 조수가 된다. 몇 해 뒤 젊은 시절의 여인 카마라와 재회하지만 그녀는 죽고 싹타르타는 돌 사이에 태어난 아들, 어린 싹타르타를 얻는다. 아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며 고통과 번뇌를 느끼지만 그는 아마저도 기

꺼워한다. 하지만 도시를 동경한 아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치고 싹타르타는 상실감에 괴로워한다. 젊었을 적, 아버지를 뿌리치고 구도자의 길을 나선 자 신처럼 자기의 길을 찾아 떠난 아들을 뒤쫓던 싹타르타는 모든 것이 윤회(輪回)임을 느끼고 강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일생동안 술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산다. 그 안에는 사랑과 따뜻함을 주는 좋은 인연이 있고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악연도 있다. 이상한 것은 바로 이상처다. 나이가 들어도 그 아픔에는 좀처럼 무뎠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혈액형과 별자리를 따지고 궁합과 관상을 본다. 나이 한 살을 더 먹을수록 경멸이란 이름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들어 타인을 저울질한다. 어떻게든 좋은 인연을 가려내겠다는 심산이지만 사람살이의 이런 모습은 되레 애처롭고 씁쓸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노력 끝에 내게 꼭 맞는 상사와 직장 동료, 배우자를 만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런 짝을 찾는다는 것은 실로 얼마나 어려운지.

평생을 잊지 못하는 그리운 이나 다시는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좋은 인연이나 악연이 따로 이

지 않고 하나인 듯하다. 소설 속의 싹타르타는 아들로부터 버림받고 고통스러워한다.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던 이가 그에게 가장 큰 번뇌와 괴로움을 주는 존재가 된 것이다. 사랑이 깊어서, 더없이 큰 기대 때문에 내게 고통과 슬픔이었던 이들이 눈앞에 떠오른다. 결국 나는 그들보다 그들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 힘겨웠다. 그러나 영원히 좋은, 혹은 영원히 끔찍한 인연이란 것이 있을까. 가물거리는 기억 속의 그들은 이제 그저 보고 싶은 얼굴, 지나가버린 인연일 뿐이다.

싹타르타는 아들을 떠나보낸 후 인간들의 어리석은 욕망마저 순순히 받아들이고 자아를 초극한 완성자가 된다. 다가오는 모든 인연을 좋고 나쁨으로 구별하지 않고 만남과 헤어짐마저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내게도 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것이 길고 먼 훗날이어도 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Modern Buddhism, including phone numbers for Seoul, Incheon, and Jeonju offices.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Modern Buddhism, including phone numbers for Daegu, Gwangju, and Jeonju offices.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불광교육원 불교강좌

불광교육원은 불교 전문강좌를 분기별로 개강하고 있습니다. 분야를 세분화하여 전공하신 선생님을 초빙하여 불광불교대학·대학원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광불교대학·대학원 (2년제 4학기)

2년과정의 불교대학과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아침반 (10:00 ~ 12:00), 저녁반 (7:30 ~ 9:30)
수업일시 : 대학(목) 대학원(월), 매학기 16주 강의
입학식 : 3월 7일(일)

각목 스님과 함께 읽는 초기불전 강독 (10주)

부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니까야' 경전에서 경구를 발췌하여 읽어 나갑니다. 초기불전을 번역하고 계신 각목 스님과 함께 합니다.

- 개강일 : 아침반 3월 17일(수) / 저녁반 3월 16일(화)
동참금 : 7만원(교재비별도)

반야·종관사상 (10주)

아침반 : 김영진 선생님(인하대)
저녁반 : 한중광 선생님(동국대)
개강일 : 3월 8일(월)
동참금 : 7만원(교재비별도)

대승기신론 (16주)

아침반 : 승원스님 (중앙승가대)
저녁반 : 석길암 선생님(금강대)
개강일 : 3월 11일(목)
동참금 : 7만원(교재비별도)

유식사상 (10주)

강 의 : 목경찬 선생님(불광불교대학 전임강사)
개강일 : 5월 17일(월, 아침반·저녁반)
동참금 : 7만원(교재비별도)